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강석우, 양희은과 호흡 MBC라디오 '여성시대'

탤런트 강석우〈사진 오른쪽〉가 5일부터 MBC라디오(표준FM 95.9㎒) '여성시대'(매일 오전 9시10분)에서 양희은과 호흡을 맞춘다. 라디오 진행은 2000년 KBS 제2라디오에서 '강석우 이지연의 행복 만들기'를 진행한 이후 7년 만이다.

강석우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삶을 진솔하게 전해주는 라디오 진행은 제2의 연기라고 생각한다"며 "전임자들에 뒤지지 않도록 나의 색깔을 잘 살려 진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3년간 '여성시대'를 지켜온 송승환은 뮤지컬 '대장금'에 집중하기 위해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몽' 이후… 방송 3사 도전과 수성

'드라마 삼국지'

김희애

SBS '내남자의 여자'

김수현 전면 내세워 '히트 드라마' 노린다

고현정

MBC '히트'

해외 로케·액션신 등 '주몽 영광' 이어간다

'눈의 여왕' '구름계단' '101번째 프로포즈' '천국보다 낯선' '독신천하' '사랑하는 사람아'….

지난 5월 첫방송을 시작한 MBC '주몽'의 위세 때문에 KBS, SBS가 편성한 10여편의 드라마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대부분의 드라마가 10% 이하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일부 드라마는 4~5%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독신천하' '사랑하는 사람아' 처럼 '조기종영'의 수모를 당한 작품들도 있었다.

당초 기획보다 20회 연장 방영으로 애가 탔던 타 방송국 월·화드라마 제작진에게 '주몽'의 종영 소식은 가뭄의 단비다. '주몽'은 오는 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12, 13일에는 '주몽' 관련 특집 프로가 예정돼 있다.

'주몽'이라는 큰 산이 사라진 월·화 드라마는 방영 시간을 조율해 가며 '주몽' 이후를 노려 왔던 KBS와 SBS의 거센 도전과 '수성'을 다짐하는 MBC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KBS는 오는 19일부터 유쾌한 사랑 이야기 '헬로 애기씨'를 선보인다. 이지환의 소설 '김치만두 다섯개'를 원작으로 한 '헬로 애기씨'는 무너져 가는 종가인 화안당의 주인 수하와 어떻게 해서든 화안당을 손에 넣어야 하는 자수성가한 머슴 출신 재벌의 손자 동규와 찬민이 엮어가는 드라마다.

'마이걸'에서 귀여운 사기꾼역으로 사랑받았던 이다해가 주인공 수하역을 맡았으며 가수 출신 연기자 이지훈이 종갓집을 노리는 재벌 3세로 변신한다. 또 5인조 그룹 '파란'의 라이언이 이다해의 이복 오빠로 출연하고 하석진·연미주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주몽'의 아성을 지키려는 MBC의 카드는 '한국판 CSI'를 표방하는 '히트'. 연쇄살인범을 좇는 여성 강력반장의 일과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로 '헬로우 애기씨'와 같은 날 첫방송을 시작한다.

여성 강력반 반장 차수경 역을 맡아 강력한 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고현정은 이번 배역을 위해 '단발커트'로 외모에 변화를 주고 액션스쿨에서 무술을 배우는 등 연기 변신에 힘을 쏟아왔다.

이미 홍콩 로케를 다녀왔으며 입체적인 영상을 담기 위해 촬영용 헬기까지 동원, 대규모 액션신도 촬영했다.

이다해

KBS '헬로 애기씨'

유쾌한 사랑이야기 시청자 사로잡는다

고현정의 상대역으로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자'와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신인배우 하정우가 낙점됐으며 가수 김정민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대본은 '대장금''서동요' 등 인기 사극을 집필했던 김영현과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인 'DMZ'의 저자 박상연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올인' 등 히트 드라마를 만든 유철용 PD가 연출을 맡아 기대를 더한다.

SBS는 '히트 드라마 제조기' 김수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4월 2일 첫방영되는 '내 남자의 여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중년 부부의 사랑과 불륜을 다룬 정통 멜로물로 김씨가 '부모님전상서' 이후 2년만에 집필하는 신작이다.

'언어의 연금술사' 등으로 불리며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김씨의 드라마는 '고정팬'들이 많아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의 작품에서 여러차례 출연한 김희애와 남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하는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으며 연기파 배우 김상중·배종옥이 함께 출연한다. 연출은 '목욕탕 집 남자들' 등을 통해 김작가와 호흡을 맞췄던 정을영 PD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반올림#' 막 내리고 '최강! 울엄마' 막 올린다

자식교육 위한 '엄마들의 분투기' KBS 2TV 다음달 11일부터 방영

KBS 2TV는 2003년부터 방송한 '반올림#' 시리즈의 막을 내리고, 다음달 11일부터 새로운 성장드라마 '최강! 울엄마'(일요일 오전 8시55분)를 선보인다.

'최강! 울엄마'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들의 분투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드라마.

그동안 골치 아프게만 여겨왔던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성찰해보는 성장드라마를 추구한다.

제작진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거쳐 4명의 주인공을 선발했다. 드라마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될 사고뭉치 고등학생 최강 역에는 개봉을 앞둔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에 출연하는 진원(18)이 캐스팅됐다.

이와 함께 각종 CF를 통해 얼굴을 알린 우리(16·사진), 뮤지컬 '천상시계'의 주연을 맡은 김하늘(17), 영화 '제니 주노'에서 주연을 맡았던 박민지(18) 등이 주축을 이룬다.

또한 최강의 동생 역으로는 영화 '파송송 계란탁'의 이인성이 출연한다.

성인 배역으로는 심혜진과 정원중이 최강의 엄마와 아빠 역으로, 김지영이 최강의 할머니로 등장한다. 그 외 이응경, 이현경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김정환, 김진환, 김상휘, 성준해 PD가 호흡을 맞추며, 극본은 '사춘기' '무동이네 집' 등의 박정화 작가와 함께 조은, 김경민 작가가 집필한다.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1번가의 기적	10만6천	169만 7천
2	드림걸즈	8만5천	24만2천
3	복면달호	6만2천700	110만9천200
4	바람피기 좋은날	4만5천500	167만 5천500
5	비벨	3만9천900	11만1천400
6	그놈 목소리	2만2천	316만2천
7	마강호텔	1만8천900	13만6천200
8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	1만7천500	34만7천200
9	텍사스전기톱연쇄 살인사건	1만3천600	6만3천200
10	아버지의 깃발	9천200	19만9천7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5.7
2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6.5
3	외과의사 봉달희	SBS 24.5
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3.1
5	거침 없이 하이킥	MBC 23.0
6	행복한 여자	KBS2 21.3
7	대조영	KBS1 21.2
8	긴급출동 SOS24	SBS 21.1
9	연개소문	SBS 19.8
10	개그콘서트	KBS2 19.8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타짜	드라마
2	해바라기	액션
3	거룩한 계보	드라마
4	Mr.로빈 꼬시기	로맨스
5	007 카지노 로얄	액션
6	열혈남아	드라마
7	데스 노트	스릴러
8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코미디
9	마음이 …	드라마
10	미이라 비기닝2	액션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팬	에픽하이
2	미인	이기찬
3	아이러니	원더걸스
4	헤이 보이	서지영
5	추억은 사랑을 닮아	박효신
6	하루	포지션
7	바보처럼	버블 시스터즈
8	미워요	씨야
9	흰눈	이루
10	일년을 겨울에 살아	브라이언

〈자료제공:벅스뮤직〉